

권력이 도덕적 위선에 미치는 영향: 도덕적 정체성의 조절효과*

정 은 경†

강원대학교

권력이 도덕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나 권력이 도덕적 위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하다. 도덕적 위선의 정의와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권력감이 도덕적 위선을 더 높일 것이며, 그 관계를 개인의 도덕적 정체성이 조절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연구 1에서는 3개 권력조건(고권력, 저권력, 통제조건)과 2개의 자기관련성 조건(도덕규범위반판단, 실제 비도덕행동)에 따른 집단구성을 통해 자기관련성에 따라 권력조건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2에서는 도덕적 정체성을 측정하여 권력조건(고권력, 저권력), 자기관련성(자신, 타인), 도덕적 정체성(고, 저)간의 3원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1의 결과는 고권력감이 도덕적 위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일반적 규범판단에서는 저권력조건이 다른 두 조건보다 더 비윤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실제 도덕적 행동에서는 고권력조건이 통제조건보다는 유의미하게 비윤리적이었으며, 저권력조건보다는 비윤리적인 경향성을 보였다. 아울러 전체적 결과를 살펴볼 때, 저권력 집단이 일반 사람에 비해 자신에게 더 엄격한 도덕성을 보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이 도덕적 위선에 미치는 영향은 도덕적 정체성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정체성이 낮은 집단에서만 고권력자가 도덕적 위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도덕적 정체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고권력자가 오히려 자신에게 엄격한 모습을 보였다.

주요어 : 권력, 도덕적 위선, 도덕적 정체성, 자기 관련성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8018049).

† 교신저자: 정은경, 강원대학교,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길 1 강원대학교 사회과학관 409호

E-mail: ekchung@kangwon.ac.kr

위선(hypocrisy)의 사전적 의미는 ‘겉으로만 착한 체하는 것’이다(표준국어대사전, 2018). 도덕적 위선이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실제 행동이나 생활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그 사람이 평소 주장하는 도덕적 가치와 다른 것을 지칭하곤 한다. 대개는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과 같은 유명인들의 사례가 매스컴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권력자들의 도덕적 위선(moral hypocrisy)을 비판하고 도덕적 위선이 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권력은 개인이 타인에게 자원을 제공하거나 통제하면서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Keltner, Gruenfeld, & Anderson, 2003)이므로 둘 이상의 관계에서라면 권력관계가 아주 쉽게 형성된다. 즉 권력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불균등하게 가지는 통제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Stevens & Fiske, 2000), 따라서 권력자의 도덕적 위선의 문제는 실제로 많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도덕적 위선은 도덕심리와 조직윤리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권력 연구에서는 자기관련성(self-relevance)이라는 개념이 이와 관련된 연구 변인이다. 즉 권력이 도덕적 판단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해당 이슈가 나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타인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라는 것으로, 관련 연구들은 권력감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해당 이슈가 자신과 관련되어 있을 때 도덕적으로 더 관대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e.g., Lammers & Stapel, 2009; Lammers, Stapel, & Galinsky, 2010).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단순히 고권력자가 저권력자보다 도덕적 위선이 더 높다는 것만을 밝힐 뿐 고권력감이 도덕적 위선을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저권력감이 이를 낮추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며, 관련된 조절변인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권력이 도덕적 위선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인을 대상으로 재검증하고 실제로 고권력감이 도덕적 위선을 높이는지 아

니면 단순히 저권력자에 비해 높을 뿐인지를 명료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권력의 효과 역시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고, 개인의 도덕적 정체성을 조절변인으로 상정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도덕적 위선과 권력

도덕적 위선¹⁾에 대한 심리학 연구들은 도덕적 위선을 크게 대인관계적(interpersonal) 차원과 개인내적(intrapersonal) 차원에서 정의한다. 도덕적 위선에 대한 전통적 견해는 대인관계 차원의 것으로 이것은 도덕적 이중성(moral duplicity)이라고 할 수 있다. 도덕적 이중성은 어떤 사람의 표현되는 규범적 기준과 실제 행동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자신을 도덕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이에 따르는 비용이나 희생은 피하려는 성향에서 나타난다(Batson, Kobrynowicz, Dinnerstein, Kampf, & Wilson, 1997, 2002). Batson과 동료들은 일련의 실험을 통해 도덕적 선택에 직면했을 때(예, 피험자와 미지의 파트너가 실시할 과제 둘-하나는 매우 지루하고 다른 하나는 재미있는 과제-을 배분할 권리를 피험자에게 줌), 약 50%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기적 선택을 하겠다고 말하고, 나머지 50%는 공정함(예, 동전던지기를 사용)이라는 도덕 가치를 선택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이기적 선택 혹은 공정한 선택을 하겠다는 두 집단 모두에서 80%-90%의 사람들이 이기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자신을 도덕적으로 보이려고 했던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기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10-20%의 사람들만이 실제 행동에서도 도덕적 선택을 하였다. 도덕적 이중성은 처

1) 이중적 가치의 충돌(한규석, 2000) 역시 비일관적인 판단과 관련되어 있으나 이는 바람직한 가치간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가치와 이익의 충돌이라는 도덕적 위선과는 다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중적 가치는 도덕적 위선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음부터 자신의 이기심을 솔직하게 드러낸 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이기심을 숨기고 타인을 속이는 기만(deception)의 한 형태로 작용하기 때문에(Monin & Merritt, 2011),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도덕적 위선의 다른 한 형태인 도덕적 이중잣대(moral double standards)는 비교적 최근에 분류되기 시작한 개념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로 다른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는 개인내적 위선을 말한다(Valdesolo & DeSteno, 2007). 도덕적 이중잣대는 평가의 불일치라는 측면에서 기준과 행동의 불일치를 의미하는 도덕적 이중성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도덕적 이중성과 도덕적 이중잣대는 모두 개인의 자기고양적(self-serving) 욕구와 자기이해추구 욕구간의 충돌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동일한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위선을 일반적인 도덕적 규범 판단은 높으나 실제 자신의 도덕적 행동은 더 비윤리적인, 도덕적 이중성과 타인에 대한 도덕적 판단보다 자신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서 더 비윤리를 수용하는 도덕적 이중잣대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도덕적 위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기애적 성격(Rangell, 1980), 도덕적 진실성(Batson, et al., 1997), 정서(Naso, 2007; Polman & Rutan, 2012; Tong & Yang, 2011; Trivers, 1991), 추상적 사고(Lammers, 2012) 등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되었다. 상기 연구들은 자기애적 성격과 추상적 사고가 위선을 높이고 인다고 지적하였으며, 수치심, 분노, 죄책감, 시기심, 자만심, 감사함 등이 도덕적 위선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혹은 도덕적 책임감이 위선을 낮추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권력이 도덕적 위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주로 자기관련성(self-relevance)라는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Lammers와 Stapel(2009)은 권력이 도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고권력감이 규칙기반 결정을 높이고 반대로 저권력감이 결과기반 결정, 즉 관여자의 심리적/신체적/경제적

이익과 손실을 기반으로 한 결정을 높인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고권력자들이 좀 더 엄격한 결정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성향은 국내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정은경, 2013). 그러나 Lammers와 Stapel은 이러한 현상이 판단의 대상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반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고 고권력감이 도덕적 위선을 높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후 연구자들 실제로 다양한 일련의 실험을 통해 고권력자들이 타인에 비해 자신에게 관대한 도덕적 위선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Lammers, Stapel, & Galinsky, 2010).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일부 실험에서는 예상치 않았던 결과가 나타났는데, 저권력자들의 경우 도덕적 위선과는 반대로 타인에게 보다 자신에게 더 엄격한 양상을 보였으며, 저자들은 이를 “자기혹평(hypercrity)”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은 모두 통제조건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여서 고권력자가 “위선(hypocrisy)”성향을 보이고 저권력자는 “자기혹평(hypercrity)”를 보인다고 명명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도덕적 정체성의 조절효과

권력과 도덕적 위선과의 관계 역시 다양한 조절변인에 의해 그 구체적 양상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도덕적 위선에 대한 권력의 효과를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검증한 Lammers와 동료들(2010)은 권력의 적법성을 조절변인으로 제시하였다. 그들의 연구 결과는 권력이 적법하지 않다고 지각될 경우에는 오히려 고권력자가 타인보다 자신에게 엄격한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적법성의 효과는 근본적으로 권력이 개인에게 “그럴만한 자격(entitlement)”이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 있다고 제안하였다. 즉 권력감은 자신(self)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유발하며, 이에 따라 권력이 도덕적 판단이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자신(self), 특히 도덕적 자아(moral self)가 도덕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Jennings, Mitchell & Hammah, 2014). 도덕적 자아에 대한 관점을 통합하여 Aquino와 Reed(2002)은 도덕적 정체성(moral identity)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으며, 도덕적 정체성은 한 개인의 도덕적 성향을 규정하는 도덕적 특질들의 연합 네트워크라고 규정하였다. 도덕성과 관련된 특질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는 특질이론적 접근을 포함하고 있으며, 외부 자극에 의해 촉발되는 스키마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인지적 접근도 포함하고 있다(Aquino & Reed, 2002). 도덕적 정체성은 내면화(internalization)와 상징성(symbolization)이라는 두 차원으로 구성된다. 내면화(예,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나'라는 존재에 중요하다')는 자기(self)의 사적인 차원으로, 도덕적 스키마가 얼마나 쉽게 접근될 수 있는냐에 대한 안정적 특성을 의미하는 반면, 상징성(예, '내가 도덕적인 특성을 지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은 공적 차원의 것으로, 자신의 도덕적 자기를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개인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대한 것이다(Boegershausen, Aquino, & Reed, 2015).

도덕적 정체성이 사람들의 도덕적 기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매우 분명하기 때문에 도덕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직접적 효과보다는 조절변인으로써의 역할에 좀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ynolds와 Ceranic(2007)은 일련의 연구를 통해 도덕적 정체성은 도덕적 판단과는 독립적으로 도덕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으며, 도덕 행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도덕적 정체성이 도덕 판단과 상호작용하여 도덕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높은 도덕적 정체성은 조직의 불공정이 반생산적 작업행동과 종업원 관여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고(He, Zhu, & Zheng, 2014; Xiaoling, Xubo, & Youshan, 2014), 죄책감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높이며(Ding, Xie,

Sun, Li, Wang, Zhen, 2016), 의무주의적 결정이 도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배가시킨다(Xu & Ma, 2016).

권력과 도덕적 기능간의 관계에 있어서 도덕적 정체성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DeCelles, DeRue, Margolis, 그리고 Ceranic (2012)은 권력이 자원배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도덕적 정체성이 조절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도덕적 정체성이 높은 고권력자는 저권력자보다 자신에게 자원을 오히려 더 적게 배분하지만, 도덕적 정체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도덕적 정체성이 단순히 권력의 이기적 성향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오히려 권력자가 더 이타적이 되도록 하는 요인일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권력이 도덕적 위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권력상태인 통제조건과의 비교를 통해 그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권력이 도덕적 위선에 미치는 영향을 도덕적 정체성이 조절하는지 또한 본 연구의 관심사이다.

연구 1

연구 1에서는 Lammers, 등(2010)이 사용한 방식을 변형하여 권력이 도덕적 위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의 도덕적 위선은 앞서 제시된 도덕적 이중성, 즉 표현되는 규범과 실제 행동과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규범적 판단과 실제 상황에서의 비윤리적 행동에 권력의 높고 낮음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기존 연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통제조건을 통해 그 영향력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동일한 주제(예, 속임수)에 대해 한 개인의 행동과 판단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은 이전 행동이나 판단이 다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때

문에 실험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도덕적 이중성은 행동과 판단은 서로 다른 집단을 통해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관련성이 없는 규범적 판단에서는 권력감이 높은 조건이 낮은 조건보다 도덕적으로 더 엄격한 판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 자기관련성이 있는 실제 도덕적 행동에서는 권력감이 높은 조건이 낮은 조건보다 더 비도덕적인 성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였다.

방 법

연구 참가자

대학생 206명(남자 102명, 여자 104명)이 소정의 보상을 받고 자원하여 실험에 참가하였으며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2.18세(SD=2.22)였다. 모두 참가자간 설계로 진행되었다.

연구 도구

권력감

권력조작은 Anderson과 Berdahl(2002)이 사용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상기 방법은 실제 기업이나 조직의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참가자들에게 리더십 검사를 통해 리더역할과 부하역할 하는 역할 부여 방식으로 권력감의 고저를 조작한다. 리더십 평가는 실제로 리더십 평가에 많이 사용되는 리더행동기술지(Leader Behavior Description Questionnaire: Halpin, 1957) 중 15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권력조작을 위한 설문이므로 실제 분석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설문 결과에 의해 리더 역할과 부하 역할이 부여되었다고 인지하였으나 실제로는 결과와 관계없이 임의로 리더와 부하에 배정되었다. 통제조건 참가자들은 취미나 성향을 묻는 일상적인 문항 15개로 구성된 설문에 응답하였다.

상사역할이 부여된 참가자들은 앞으로 공장

부지 선정을 위해 작성된 기획안을 평가할 것이며, 기획안은 부하역할을 맡은 사람이 작성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반면, 부하역할이 부여된 참가자들은 앞으로 공장부지 선정을 위한 기획안을 작성할 것이며, 작성된 기획안은 상사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평가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권력조작 후 “당신은 앞으로 평가할 기획안을 작성한 부하(기획안을 평가할 상사)에 비해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라는 권력조작 확인 문항에 5점 척도로 답하였다.

비도덕적 행동과 규범위반판단

자기관련성 유무는 기존 연구에 사용되었던 방식인 자신의 비도덕적 행동과 일반적 규범위반 판단으로 측정되었다(Lammers, et al., 2010). 규범적 판단은 도덕적 판단의 한 형태로, 특정 상황에서 촉발된 정서나 직관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회에서 통용되는 도덕규범에 근거한 일반적 판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되는 도덕적 행동은 자신의 이익이 관련된, 즉 자기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인 반면, 규범적 판단은 자기관련성이 없는 타인의 규범위반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비도덕적 행동은 Fischbacher와 Heusi(2008)이 사용한 방법을 변형한 것으로, 자신의 이득을 높이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실제 행동이 측정되었다. 권력조작 후 참가자들은 혼자 대기하는 동안 추가 사례비 책정을 위해 주사위굴리기를 하도록 지시받았다. 과제에 대한 지시문으로는 “제가 다음 과제를 가져올 동안 잠깐 기다려주세요. 그 동안 저희 연구비에서 추가 사례비를 써야하는 것이 있어서 추가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례비는 주사위 숫자 합에 따라 천원, 3천원, 5천원 중 어떤 금액이 받을지 결정됩니다. 여기 6개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각 주사위 숫자의 합이 높을수록 높은 금액을 받을 확률은 높아집니다. 제가 돌아올 때 결과를 알려주세요.”라는 내용이 제공되었다. 이후 참가자가 보고한 주사위합이 측정치

로 사용되었으며 가능한 값의 범위는 6~36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거짓말을 더 많이 했음을 의미한다.

규범위반 판단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을 높이기 위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수용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즉 “회사의 직원이 출장경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하는 것”이라는 제 3자가 주어가 되는 문장을 읽고 해당 행동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수용가능한지를 5점 척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값이 높을수록 도덕적 판단이 느슨함을 의미한다. 규범위반 판단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과제를 가져올 동안 잠깐 기다려주세요. 그 동안 아래 설문지를 작성해주세요.”라는 지시문이 제공되었다.

정서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권력조작 후 정서를 측정하였다. Lammers, 등(2015)이 사용한 정서 확인문항(긍정정서 3문항, 부정정서 3문항)을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716이었다.

연구 절차

참가자들은 실험실 도착후 무작위로 실험조건에 배정되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연구진행 및 참가자 권리에 대한 안내를 받고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 이후 권력조건(고권력, 저권력, 통제) 조작을 위한 설문지 실시되었으며,

연구보조자는 설문지 채점을 위해 잠시 퇴장하였다가 다시 돌아와 결과를 설명하였다(실제로는 결과가 아닌 무선적 배정).

이후 각 집단은 앞으로 공장부지 선정 과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안내를 받았다. 자료준비를 위해 연구보조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사이 도덕적 행동 집단은 주사위과제를, 그리고 규범적 판단 집단은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지시받았다. 연구보조자가 돌아온 후 참가자들은 권력조작확인, 정서확인 및 인구통계학적 정보 수집을 위한 간단한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사후설명서를 통해 실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해산하였다.

결과 및 논의

집단에 따른 종속변인의 기술통계치값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권력조작을 확인한 결과, 고권력조건이 저권력조건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권력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t(135) = -2.95, p < .01$, 권력조작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권력조건간 정서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이후 분석에서는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규범위반 판단에 미치는 권력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권력은 규범위반 판단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101) = 3.62, p < .05, \eta^2 = .067$. 본 연구의 관심사는 고권력조건이 저권력 및 통제조건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므로 사전계획비교를 실시하였다. 고권력조

표 1. 권력과 자기관련성 조건에 따른 종속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연구 1)

	고권력			저권력			통제		
	N	M	SD	N	M	SD	N	M	SD
비도덕적 행동(높은 자기관련성)	34	22.62	4.44	34	20.65	3.98	34	20.18	5.21
규범위반 판단(낮은 자기관련성)	34	1.91	0.57	35	2.34	1.06	35	1.86	0.77

*비도덕적 행동 범위: 6-36(높을수록 많은 거짓말), 규범위반 판단 범위: 1-5(높을수록 비윤리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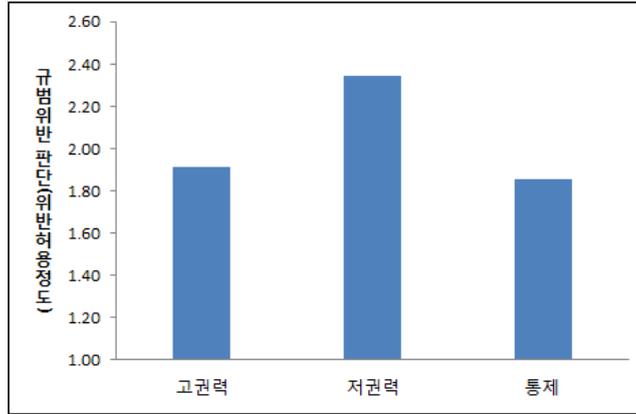


그림 1. 권력조건에 따른 규범위반 판단의 차이(연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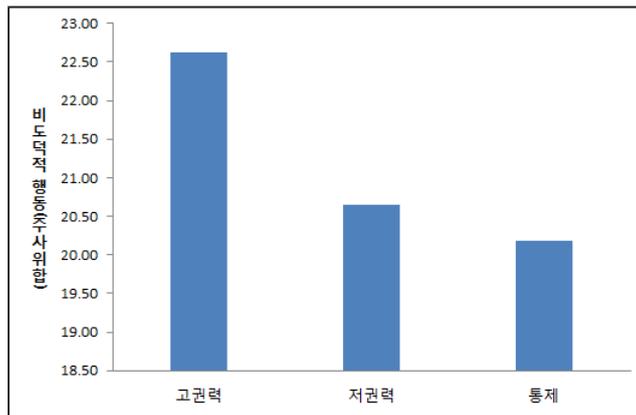


그림 2. 권력조건에 따른 비도덕적 행동차이(연구 1)

건은 저권력조건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엄격한 판단을 보였으나, $p < .05$, 통제조건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통제조건 역시 저권력조건보다 유의미하게 더 엄격한 판단을 보였다, $p < .05$ (그림 1). 즉 타인의 규범위반에 대해 저권력조건이 고권력조건뿐 아니라 일반인에 비해서도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비도덕적 행동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분석결과, 권력조건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가설과 일치하는 방향의 경향성이 나타났다, $F(2, 99) = 2.73, p = .07, \eta^2 = .052$. 사전계획비교 결과, 고권력조건은 저권

력조건에 비해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가설과 일치하게 높은 값을 보이는 경향성이 나타났으며, $p = .07$. 통제조건에 비해서는 유의미하게 높은 값을 보였다, $p < .05$. 저권력조건과 통제조건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그림 2).

연구 1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먼저 일반적 규범 판단에 대해서는 저권력조건이 고권력이나 통제조건에 비해 도덕적으로 더 허용적인 판단을 보인 반면, 실제 도덕적 행동에서는 고권력조건이 저권력조건보다는 비윤리적인 경향성이, 통제조건보다는 유의미하게 비윤리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인에 대한 평가

와 자신의 행동이 불일치하는 도덕적 위선은 고 권력조건에서만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본 연구의 예상과 일치되는 것으로, 고 권력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이 적은 타인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실제 행동을 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다만, 통제조건의 결과를 살펴보면, 권력감의 효과가 그리 단순하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타인의 규범위반행동을 판단할 때는 고권력감이 도덕적 판단을 엄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권력감이 도덕적 판단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로 도덕적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고권력감이 비윤리적 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

연구 2는 연구1에서 확인된 권력조건에 따른 도덕적 위선이 도덕적 정체성이라는 개인특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고권력집단일지라도 도덕적 정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도덕적 위선의 정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구의 간명성을 위해 통제 조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반적인 규범 판단과 자신이 관련된 실제 상황과의 차이를 알아보았던 연구1과는 달리 연구 2에서는 앞서 제시된 도덕적 위선 중 도덕적 이중잣대에 해당하는 과제를 실시하였다. 즉 연구2에서는 동일한 상황에 대해 자신과 타인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기관련성을 조작하였다. 연구2에는 권력조건(고/저 2수준)과 자기관련성조건(유/무 2수준)은 조작을 통해 피험자간 집단으로 설계되었으며 도덕적 정체성은 척도로 측정되어 고/저 2집단으로 나뉘어져 총 8집단이 형성되었다.

방 법

연구 참가자 및 연구절차

2개 대학의 커뮤니티에 실험참가공지를 게재하여 자발적으로 모집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192명이 참가하였으나 끝까지 모든 과제를 마친 참가자는 188명(남자 95명, 여자 93명)이었으며 이들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가자들은 연구조건에 무작위로 할당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25.5세(SD=4.89)였다. 모든 과제를 마친 참가자들은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보상을 지급받았다.

각 집단에 할당된 참가자들은 먼저 도덕적 정체성과 과제에 응답을 하였으며, 이후 권력조작을 위한 리더십 설문에 응답하였다. 리더십 설문이 끝난 후 컴퓨터에서는 자동으로 채점된 결과가 제시되고 이에 기반하여 상사역할 또는 부하역할이 할당되었음을 알려주었다. 물론 채점 결과는 실제 결과가 아니며 무선적으로 상사 혹은 부하의 결과가 제시되도록 하였다. 이후 도덕적 상황 판단과제를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정서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응답하였다.

권력감

권력조작은 연구1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통제조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자기관련성: 자신/타인에 대한 도덕적 판단

자기관련성의 유무는 이전 연구(이혜원, 2016)에서 사용하던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시나리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도덕적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관련성이 있는 조건에서는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당신'으로 제시되었고, 자기관련성이 없는 조건에서는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A'로 제시되었다.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당신(A)은 중요한 약속에 늦을까봐 서두르고 있는 중입니다. 버스 도착시간을 확인해보니 지금 바로 길 건너 정류장으로 뛰어가면 늦지 않게 버스를 탈 수 있지만, 횡단 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면 버스를 놓치게 될 것

입니다. 결국 당신(A)는 약속시간에 맞추기 위해 무단횡단을 해서 버스에 탑승합니다.

상기 시나리오에 대해 참가자들은 ‘당신(A)이 무단횡단을 한 것은 도덕적으로 용인될만하다’라는 문장에 대해 9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9점: 매우 그렇다)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였다.

도덕적 정체성

도덕적 정체성은 Aquino와 Reed(2002)의 도덕적 정체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신에게 도덕적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가하는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나’라는 존재에 중요하다’, ‘도덕적인 특성을 지니는 것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역체점)).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7이었다. 최종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50%는 높은 정체성 집단, 하위 50%는 낮은 정체성 집단으로 분류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정서

연구1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었다.

결과 및 논의

집단에 따른 도덕적 허용가능성 점수의 기술 통계치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권력조작 확인 결과, 고권력조건은 저권력조건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권력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t(186) = 7.84, p < .001$. 정서의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고권력조건이 저권력조건보다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정서를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t(186) = 2.29, p < .05$. 따라서 이후 분석에는 긍정정서를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권력조건(고, 저), 자기관련성(유, 무), 도덕적 정체성(고, 저)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변량분석이 실시되었다. 분석결과, 모든 주효과와 이원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삼원상호작용효과만 유의미하였다, $F(1, 179) = 7.33, p < .01, \eta^2 = .039$. 구체적으로, 도덕적 정체성이 높은 집단에서의 권력조건과 자기관련성 조건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였다, $F(1, 94) = 4.41, p < .05, \eta^2 = .045$. 고권력조건은, 자기관련성이 없을 때보다 자기관련성이 있을 때 더 엄격한 판단을 내렸으나, $t(49) = 2.02, p < .05$, 저권력조건에서는 자기관련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그림 3). 반면, 도덕적 정체성이 낮은 집단에서의 권력조건과 자기관련성 조건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예상하는 방향의 경향성을 나타냈다, $F(1, 86) = 3.06, p < .10, \eta^2 = .034$. 고권력조건은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관련성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해당 행동이 도덕적으로 더 수용가능하다고 답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t(39) = 1.89, p < .07$, 저권력조건에서는 역시 자기관련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4).

참고로 도덕적 정체성 집단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권력조건별로 분리하여 자기관련성과 도덕적 정체성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고권력조건에서의 자기관련성 조건과 도덕적 정체성집단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였다, $F(1, 87) = 7.72, p < .01, \eta^2 = .082$. 그림 5

표 2. 권력, 자기관련성, 도덕적 정체성 집단에 따른 도덕적 허용가능성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연구 2)

	고권력						저권력					
	자기관련성 있음			자기관련성 없음			자기관련성 있음			자기관련성 없음		
	N	M	SD									
높은 도덕적 정체성	24	4.17	1.93	27	5.33	2.17	26	5.00	2.17	21	4.38	2.08
낮은 도덕적 정체성	21	5.67	1.93	20	4.40	2.16	21	4.52	2.38	28	4.86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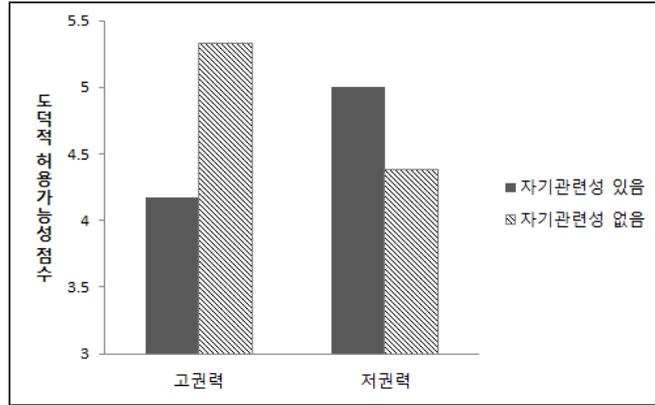


그림 3. 높은 도덕적 정체성집단에서의 권력조건과 자기관련성의 상호작용 효과(연구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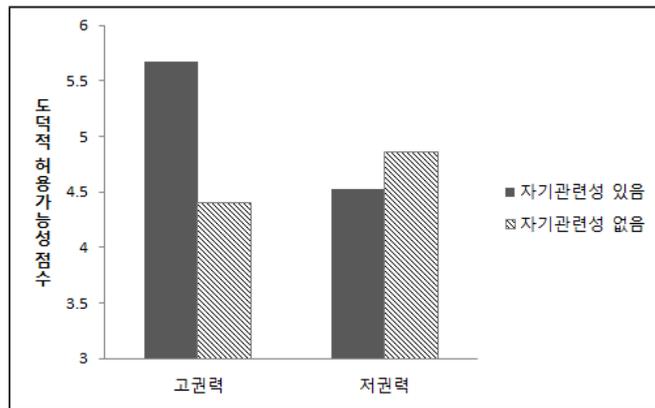


그림 4. 낮은 도덕적 정체성집단에서의 권력조건과 자기관련성의 상호작용 효과(연구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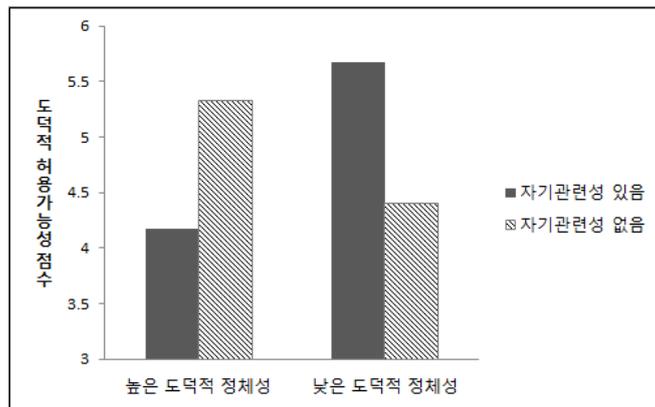


그림 5. 고권력 조건에서의 도덕적 정체성과 자기관련성의 상호작용 효과(연구 2)

에 제시되어 있듯이 도덕적 정체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 고권력조건에서, 자기관련성이 없을 때보다 자기관련성이 있을 때 더 엄격한 판단을 내렸으나, $t(49) = -2.02, p < .05$, 이와 반대로 도덕적 정체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 고권력조건에서는 반대의 성향, 즉 자기관련성이 없을 때보다 자기관련성이 있을 때 더 느슨한 판단을 보이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t(39) = 1.98, p = .055$. 반면, 저권력 조건에서는 자기관련성조건과 도덕적 정체성집단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도덕적 정체성의 조절효과는 고권력조건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는 연구 1에서 발견된 자기관련성에 따른 권력의 효과를 도덕적 정체성이라는 개인특성이 조절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 결과, 권력과 자기관련성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아 자신과 타인에 대한 도덕적 잣대는 권력조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도덕적 정체성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였는데, 권력과 자기관련성간의 상호작용은 도덕적 정체성에 따라 그 방향성이 반대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도덕적 정체성을 보이면서 고권력감을 느끼는 집단은 타인보다 자신에게 더 엄격한 도덕적 판단을 내렸으나 도덕적 정체성이 낮으면서 고권력감을 느끼는 집단은 반대로 타인보다 자신에게 더 느슨한 도덕적 판단을 내렸다. 추가로 실시한 분석에서는 이러한 도덕적 정체성의 조절효과가 저권력감이 아니라 고권력감에서만 발생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권력감을 지닌 사람이 위선을 나타내는지 여부는 개인의 도덕적 정체성에 따라 달라지며, 심지어 높은 도덕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은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너그러운 성향을 보임을 시사한다.

종합논의

본 연구는 권력이 도덕적 위선에 미치는 영

향을 기저선을 형성하는 통제조건을 포함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조절변인으로써 도덕적 정체성의 역할도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결과,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고권력감을 느낀 사람들은 일반적 규범 및 타인평가시에 저권력감을 느낀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엄격한 모습을 보였으나 실제 도덕적 행동에서는 더 비도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연구1). 구체적으로, 우선 도덕적 규범위반 판단에 대해서는 고권력자들은 일반집단과 별 차이가 없으나 저권력자들이 오히려 비도덕적인 것에 대해 더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권력자들이 규칙기반결정을 하고 저권력자들이 결과주의적 결정을 한다는 선행연구들(정은경, 2013; Lammers & Stapel, 2009)과 일관된 것이다. 즉 저권력감은 개인의 취약감을 자극하고(정은경, 2013) 자존감을 낮춰서(Wojciszke & Struzynska-Kujalowicz, 2007) 자신의 내적 가치보다는 상황적 압력에 더 영향을 받게 만들 수 있다(Galinsky, Magee, Gruenfeld, Whitson, & Lijienquist, 2008).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저권력자들이 조직이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비윤리적 결정이나 상황을 좀 더 수용하고 침묵할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저권력감이 고권력감에 비해 실제로 상황적 비윤리나 관행을 더 수용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규범위반 판단과는 달리 비도덕적 행동에서는 고권력자들이 일반인에 비해서는 유의미하게 비윤리적이었으며, 저권력자들에 비해서는 더 비윤리적인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자신과 관련된 상황이 되면 고권력자들이 저권력자들에 비해 상황적 이익과 손실에 기초한 결과기반 결정을 하고(Lammers & Stapel, 2009) 도덕적 위선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Lammers, Stapel, & Galinsky, 2010)와 일관된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Lammers, Stapel, 그리고 Galinsky가 말한 ‘저권력자의 자기혹평’은 발견되지 않았다. 자기혹평(hypercrisy)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

한 도덕적 니그러움과 동시에 자신에 대한 엄격함이 존재해야하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는 저권력자가 고권력자와 일반인에 비해서 타인의 규범위반에 대해 더 허용적인 것은 사실이나, 실제 자신의 도덕적 행동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사람, 즉 통제조건과 여전히 유사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즉 저권력감을 가졌다고 해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자신에게 더 엄격한 도덕성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비윤리적 행동에서도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저권력 조건도 통제조건에 비해 약간 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까지 고권력이든 저권력이든 일단 권력에 접화가 되면 보통 사람들보다 비윤리적 성향을 보이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검증하거나 그 이유에 대해 탐색한 연구는 전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경쟁, 특히 구체적 경쟁 상황이 비윤리적 성향을 높인다는 연구들(Barker & Barclay, 2016; Desmet, Hoogervorst, & Van Dijke, 2014)과 권력관계라는 것이 권력이라는 특권을 두고 형성되는 상대적인 경쟁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권력 프라이밍은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이것이 전체적인 비윤리성을 높일 가능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도 추후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2에서는 연구 1의 결과에서 시사되는 권력조건과 자기관련성조건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인데, 그 이유로는 크게 2가지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덕적 규범위반 딜레마(교통법규 위반)가 조건간 차이를 유발하기에는 너무 약한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도(Lammers, et al., 2010) 교통위반, 세금탈루, 자전거절도라는 3개의 딜레마를 사용하여 연구2와 같은 도덕적 위선을 측정하였는데, 가장 처벌성이 낮고 일상적으로 흔히 일어나는 상황인 교통위반 딜레마에서만 유의미하지 않은 경향성만을 발견하였다. 또 다른 가능성은 도덕적 위선의 유형에 따라 권력의 영

향이 다를 가능성이다. 앞서 기술한대로 도덕적 위선은 규범판단과 실제행동의 불일치라는 도덕적 이중성(연구1)과 자신과 타인을 다르게 평가하는 도덕적 이중잣대(연구2)로 나누어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도덕적 이중잣대의 경우 도덕적 위선과 달리 권력의 영향이 그리 안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다만, 본 연구결과만으로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사용한 연구를 통해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정체성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는데, 고권력 조건의 도덕적 위선의 효과는 도덕적 정체성이 낮은 집단에서만 나타났다. 도덕적 정체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거꾸로 고권력조건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양상이 나타났다. 반면 저권력조건에서는 도덕적 정체성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도덕적 정체성의 영향력이 저권력자들에 비해 고권력자들에게 훨씬 강력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도덕적 정체성이 비교적 안정적인 개인특성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앞서 언급한 고권력자들이 상황적 영향을 적게 받고 자신의 내적 가치나 판단에 좀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Galinsky, Magee, Gruenfeld, Whitson, & Lijienquist, 2008)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저권력자들에 비해 고권력자들은 상황보다는 자신의 내적 가치관과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리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도덕적 정체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높은 도덕적 가치를 구현하는 판단을 하게 되며, 반대로 도덕적 정체성이 낮은 사람은 도덕적 가치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 1과 달리 통제조건이 포함되지 않아 도덕적 정체성이 권력과 도덕적 위선에 미치는 영향의 정확한 효과는 파악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아울러 도덕적 정체성은 안정적인 개인특성이기도 하나 일시적인 자극을 통해 점화도 가능한 특성으로 보고되고 있어 (Bryan, Adams, & Monin, 2013) 추후 연구에서는

도덕적 정체성을 조작하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연구 1과 연구 2 모두 역할 부여를 통해 권력을 조작하여 단어 점화나 에세이를 통한 기억점화방식을 통한 권력조작 효과는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도 존재한다. 역할부여 조작이 조직 등 권력관계가 흔히 일어나는 현장과 좀 더 일치하므로 생태학적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는 있으나 단순한 권력감의 효과 역시 검증해 볼 필요는 있겠다. 또 다른 제한점으로는 연구2의 사례수 문제이다. 파워분석 결과, 검증력 80%를 최소기준으로 했을 때(Cohen, 1988) 필요한 샘플수는 연구1은 200명, 연구2는 240명이다. 연구1의 참가자는 206명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연구2의 경우 188명으로 부족한 샘플수이다. 따라서 연구2의 결과는 충분한 샘플수를 확보하여 재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상기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권력이 도덕적 위선에 미치는 영향과 양상을 통제조건을 포함하여 처음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였으며, 도덕적 정체성이 권력과 도덕적 위선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처음으로 규명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이해원 (2016). 권력이 상황 판단에 미치는 영향: 자기관련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경 (2013). 누가 결과주의적 결정을 내리는가? 권력이 윤리적/정책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 489-506.
- 한규석 (2000). 한국인의 공과 사의 영역: 공정과 인정의 갈등.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6, 39-63.
- Anderson, C., & Berdahl, J. L. (2002). The experience of power: Examining the effects of power on approach and inhibition tendenc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6), 1362-1377.
- Aquino, K., & Reed II, A. (2002). The self-importance of moral ident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6), 1423.
- Barker, J. L., & Barclay, P. (2016). Local competition increases people's willingness to harm others.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37(4), 315-322.
- Batson, C. D., Kobryniewicz, D., Dinnerstein, J. L., Kampf, H. C., & Wilson, A. D. (1997). In a very different voice: Unmasking moral hypocris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6), 1335-1348.
- Batson, C. D., Thompson, E. R., & Chen, H. (2002). Moral hypocrisy: Addressing some alterna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2), 330-339.
- Boegershausen, J., Aquino, K., & Reed II, A. (2015). Moral identity.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6, 162-166.
- Bryan, C. J., Adams, G. S., & Monin, B. (2013). When cheating would make you a cheater: Implicating the self prevents unethical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42(4), 1001.
- DeCelles, K. A., DeRue, D. S., Margolis, J. D., & Ceranic, T. L. (2012). Does power corrupt or enable? When and why power facilitates self-intereste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7(3), 681.
- Desmet, P. T., Hoogervorst, N., & Van Dijke, M. (2015). Prophets vs. profits: How market competition influences leaders' disciplining behavior towards ethical transgressions. *The Leadership Quarterly*, 26(6), 1034-1050.
- Ding, W., Xie, R., Sun, B., Li, W., Wang, D., & Zhen, R. (2016). Why does the "sinner" act prosocially? The mediating role of guilt and the moderating role of moral identity in motivating

- moral cleansing, *Frontiers In Psychology*, 7, 1317.
- Fischbacher, U., & Heusi, F. (2008). Lies in disguise: an experimental study on cheating, *TWI Research Paper Series*, 40.
- Fiske, S. T. (1993). Controlling other people: The impact of power on stereotyping. *American Psychologist*, 48, 621-628.
- Galinsky, A. D., Magee, J. C., Gruenfeld, D. H., Whitson, J. A., & Liljenquist, K. A. (2008). Power reduces the press of the situation: implications for creativity, conformity, and disson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6), 1450.
- Halpin, A. W. (1957). *Manual for the leader behavior description questionnaire*. Columbus: The Ohio State University, Bureau of Business Research.
- He, H., Zhu, W., & Zheng, X. (2014). Procedural justice and employee engagement: Roles of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nd moral identity centrality, *Journal of Business Ethics*, 122(4), 681-695.
- Jennings, P. L., Mitchell, M. S., & Hannah, S. T. (2014). The moral self: A review and integration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36, 104-168.
- Keltner, D., Gruenfeld, D. H., & Anderson, C. (2003). Power, approach, and inhibition. *Psychological Review*, 110, 265-284.
- Lammers, J., & Stapel, D. A. (2009). How power influences moral thin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 279-289.
- Lammers, J., Stapel, D. A., & Galinsky, A. D. (2010). Power increases hypocrisy: Moralizing in reasoning, immorality in behavior. *Psychological Science*, 21(5), 737-744.
- Lammers, J. (2012). Abstraction increases hypocris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8(2), 475-480.
- Lammers, J., Galinsky, A. D., Dubois, D., & Rucker, D. D. (2015). Power and morality.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6, 15-19.
- Monin, B., & Merritt, A. C. (2011). *Moral hypocrisy, moral inconsistency, and the struggle for moral integrity*. M. Mikulincer, P. R. Shaver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morality: Exploring the causes of good and evil*. Herzliya Series 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 Naso, R. C. (2007). Beneath the mask: Hypocrisy and the pathology of shame. *Psychoanalytic Psychology*, 24(1), 113-125.
- Polman, E., & Ruttan, R. L. (2012). Effects of anger, guilt, and envy on moral hypocris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1), 129-139.
- Pennington, N., & Hastie, R. (1993). *A theory of explanation-based decision making*. In G. A. Klein, J. Orasanu, R. Calderwood, & C. E. Zsombok (Eds.), *Decision making in action: Models and methods*. Westport, CT: Ablex Publishing.
- Rangell, L. (1980). *The mind of Watergate: An exploration of the compromise of integrity*. New York, NY: Norton.
- Halpin, A. W. (1957). *Manual for the leader behavior description questionnaire*. Columbus: The Ohio State University, Bureau of Business Research.
- Reynolds, S. J., & Ceranic, T. L. (2007). The effects of moral judgment and moral identity on moral behavior: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moral individual.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6), 1610-1624.
- Stevens, L. E., & Fiske, S. T. (2000). Motivated impressions of a powerholder: Accuracy under task dependency and misperception under evaluation dependenc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8), 907-922.
- Tong, E. M. W., & Yang, Z. (2011). Moral hypocrisy: Of proud and grateful people.

-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2(2), 159-165.
- Trivers, R. (1991). *Deceit and self-decep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and consciousness*. Man and beast revisited, ed. M. Robinson & TL Tiger, 175-91.
- Valdesolo, P., & DeSteno, D. (2007). Moral hypocrisy social groups and the flexibility of virtue. *Psychological Science*, 18(8), 689-690.
- Wojciszke, B., & Struzynska-Kujalowicz, A. (2007). Power influences self-esteem. *Social Cognition*, 25(4), 472-494.
- Xu, Z. X., & Ma, H. K. (2016). How can a deontological decision lead to moral behavior? The moderating role of moral identity. *Journal of Business Ethics*, 137(3), 537-549.
- 1 차원고접수 : 2017. 10. 16.
수정원고접수 : 2018. 01. 21.
최종게재결정 : 2018. 02. 14.

Does Power Increase Moral hypocrisy?: Moderating Role of Moral Identity

Eun Kyoung Chu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on moral hypocrisy and power, this paper hypothesized that power increases moral hypocrisy and moral identity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n study 1, 3 power conditions (high power, low power, control) and 2 self-relevance conditions(moral norm judging, actual moral behavior) were designed to test the effect of power on moral judging and behavior. In study 2, the three-way interaction of power conditions(high, low), self-relevance conditions(self, others), and moral identity (high, low) was explored. Results of study 1 showed whereas the low power group expressed more generous standard to others compared to the high power and the control groups, the high power group showed more unethical self-interested behaviors than the other groups. However, the general morality of power priming groups was lower than the control group, whether it is high power or low power, which does not support the argument that the powerless show hypercrisy. Study 2 unveiled the moderating role of moral identity. In specific, the powerful showed moral hypocrisy in the group with low moral identity. However, the powerful were more strict to themselves than to others in the group with high moral identit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direc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power, moral hypocrisy, moral identity, self-relevance